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르면 배우고, 힘들면 힘 합치고

글 · 김은희 keh1408@naver.com

95년 대학입학 후 유인물을 들고 대열을 맞춰 거리로, 거리로, 내달리던 것이 시대의 유일한 해방구라 여기며 청춘의 열병을 앓았다. 대학 졸업 후 20대가 저물어 갈 무렵까지 고집된 아스팔트 농사의 반복된 실패와 좌절은 '나'와 '세상', '삶'과 '운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철을 살다가는 한살이 풀이라도 기쁘고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존재의 이유인 것을. 사람이란 것이 본래 온존히 제 힘만으로 앞가림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인생 7,80을 살면서 어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주인답게 살아가는 것...

30대 이립이란 시기의 문턱을 넘어 세상과 단절된 운동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세상과 나와의 소통의 창구를 발견했다. 살아가는 것이 곧 시대의 변화이자 발전이 될 새로운 운동의 패러다임! 이웃과 삶을 나누고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참되게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였다.

‘근데 어떻게 해야하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막막함은 풀렸지만 한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을 만들어 가야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또 다른 산으로 다가왔다. 이 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까? 하고 열심히 누리망을 뒤지던 차에 우연히 풀뿌리 자치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어느 날 운명같은 편지가 당도했다. 바로 '풀뿌리 활동가 교육' 안내였다.

애가 셋이나 딸린 아줌마의 신분으로 4박5일이라는 긴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아이들의 거취와 자잘한 생활도 단도리를 해 놓아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일생 일대 대박의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는 무대포적인 기대감에 일단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생을 먼저 꼬시고 남편과 아이들은 무작정 믿어 보기로 했다. '알아서 잘들하고 있겠지!' 갑자기 식구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마구 솟구친다. 새로운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앞뒤 가릴 것 없이 파주로 우리를 무작정 끌어 올렸다.

약간 늦게 도착한 우리 일행은 20여 명의 참가자들을 보고 반가움과 함께 어색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마을도 다르고, 활동 포지션도 다양한데 처음 만난 우리가 4박 5일 동안 공동체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나갈까? 불안과 초조, 그리고 기대 속에서 하루 하루 밤은 깊어만 갔다.

역시...

그 때 현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풀뿌리 활동가 교육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유정길 선생님의 운동적 삶에 대한 시대담론, 임경수 선생님의 살아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회 소식



사례와 지역현실분석 방법론, 김태황 선생님의 매체의 이해, 유창복 선생님의 성미산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어 온 과정과 경험들, 그리고 윤경아 선생님과 이호 선생님의 강의 등, 강사진과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장소와 시설 등 모든 것이 훌륭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풀뿌리 활동가 교육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의미는 4박5일 동거동락했던 동기들이 준 감동이었다. 누구하나 소외시키지 않고 누구하나 강요하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 가고자 기다려주고, 주저앉지 않고 발맞추어준 아름다운 사람들.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바로 그곳에서 더불어 사는 삶과 주인다운 삶을 소박하게나마 만

들고자 노력했던 우리가 바로 공동체이자 희망이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동기들이 원하니까 기꺼이 춘남으로 변신해준 밥알님과 매 순간 함께한 사람들을 '좋은 분'으로 만들어 모두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켜준 세순님, 교육시간 내내 위트와 재치로 동기들을 즐겁게 해준 핑팬님, 뒷풀이 자리에서 유재석, 강호동을 능가하는 웃음 재조기였던 관악산님, 언제나 옆에서 지긋이 바라봐 주고 채워주는 네모, 마지막 날에 갈무리 하는 자리에서 이별의 뜨거운 눈물을 지어 보였던 비전 메이커, 그리고 따뜻한 시선과 품으로 서로를 아껴주었던 동기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힘들면 힘 합치고, 어려우면 머리를 맞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따뜻한 삶이 통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역에서 살면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실무 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것'이, 지역 운동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믿었고 그리 되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학원도 다녀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현장을 쫓아 다니며 공부도 했다. 투박하더라도 사람냄새 묻어나는 활동보다는 세련된 판을 쫓아 전력 질주했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을 믿고 사람과 함께 하는 마음과 태도가 뺄어져 버렸던 건 아닌지 이번 교육을 통해 반성해 본다.

함께 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것보다 현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엮어 가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세상이란 큰 바다에서 참 삶의 의미를 낚는 그물코의 첫 씨줄(벼리)로 살아가려고 했던 첫 마음보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엮는 어부로 살아가고 싶다.

촌에서 어떻게든 잘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부족한 중생에게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 우리 동기들과 풀뿌리 활동가 교육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글 김은희 | 전남 화순 교육문화 공동체 느티나무

시민교육 활동가를 위한 배움터 2009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를 돌아보며

글 · 조철민 free@kdemo.or.kr

세 가지 질문

우리의 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공론화되고 있고, 저마다 다른 관점의 진단과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으는 것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로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시민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원리이자 생활양식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심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역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시민교육이라고 여겨진다. 시민들이 민주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향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것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수적인데, 시민교육은 그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입시위주의 공교육, 우리 현대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정치적인 것'에 대한 기피문화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훈련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시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시민교육에 관한 제도마련,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 다양한 길들이 있을 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교육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무엇을 어떻게 담고자 했는가?

우리 사회 시민교육의 상황이 열악하지만, 지역사회, 시민단체, 복지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인권, 공동체,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교육 활동에 열정을 태우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다. 정치판을 바꾸거나, 무언가 큰 성과를 내 언론을 장식하지는 않더라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시민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또 안타까움이 생긴다. 시민교육을 잘 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 시민교육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들을 돕고 싶어진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을 중요한 사업으로 정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시민교육의 주체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되며,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의 끝자락은 시민교육 활동가들이 활동을 잘 펼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힘의 뿌리는 시민교육 활동에 관한 비전과 역량이라고 생각했다. '사업회가 시민교육 활동가 교육을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부의 질문과 '너



사업회 소식

회가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외부의 질문 속에 망설임도 있었다. 하지만 설익은 생각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자. 진정성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 가다보면, 힘도 얻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비판도 하다보면 다듬어져 가겠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은 바로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기획위원들이다. 깨달았다. 그 어떤 학자나 전문가 보다 시민교육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활동가들임. 오랜 시간 시민교육 활동에 몸담아 왔던 선배 활동가 몇 분을 모셨다. 그분들이 그간 많은 시행착오와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쌓아온 살아있는 철학과 지식, 노하우를 꺼내 달라고 졸랐다. 그분들이 꺼내 준 내용들이 아니었다면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는 만들어질 수 없었지만, 더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이 쏟아준 열정과 정성이었다. 기획회의가 자주 열렸지만 불평 없이 임해주었고, 2박 3일로 진행된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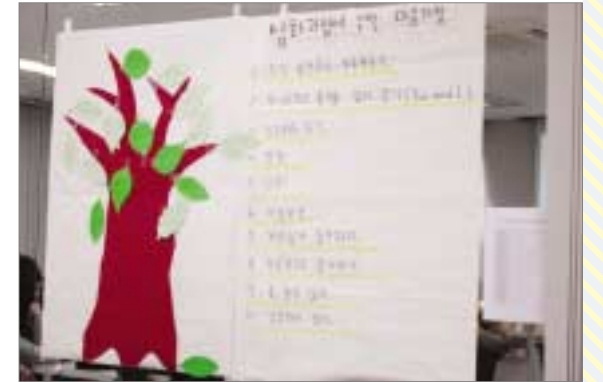
기획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진행된 토론 끝에 활동가들의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는 것은 시민교육 활동의 철학과 그것을 실현할 기획역량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의 지향은 '비전과 역량을 겸비한 활동가'로 정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



신의 경험으로부터 문제를 도출하고, 표면적인 기술 보다는 생각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그리고 참가한 활동가들은 뜨거운 열의와 밝은 웃음으로 화답해 주었다.

더 나은 아카데미를 위하여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는 아직도 진화 중이다. 2008, 2009년 두 차례의 기초과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교육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세워보고, 원리에 입각해 교육을 기획해 보는 심화과정도 열렸다. 참가한 활동가들은 자기 일인 것처럼 좀더 나아지기 위한 조건들을 보내 주었다. 활동가들은 좀더 현장성 있는 내용을 바라며, 좀더 여유있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른 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소중한 의견을 되새겨본다.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가 프로그램의 완성도라는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고, 시민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하고자 이 순간에도 많은 생각과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을 시민교육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가길 기원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시민교육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가치와 지식, 그리고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는 또 하나의 도전을 이야기 해 본다.



글 조철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팀 전문위원

사업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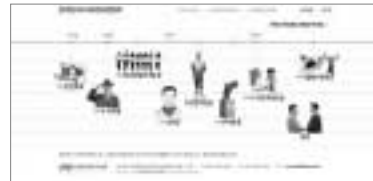
설립8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달 12일(목) 사업회는 설립 8주년을 맞아 2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이어 성유보 이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사업회 대표 설립위원이 기도 한 성유보 이사는 2001년 사업회가 설립될 당시의 이야기, 사업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임직원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강연했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갖고 있다.”며 “우리 모두 운명론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민주시민들로서의 낙관론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국현대사 사료정보콘텐츠 새단장

사료관은 한국현대사 사료정보콘텐츠(<http://contents.kdemocracy.or.kr/>)를 리뉴얼하여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09년 2월부터 <4·19혁명>, <한일회담반대운동>, <유신반대운동>, <6월민주항쟁>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 해왔으며, 올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전태일>, <통일>을 추가 제작하여 총 9개의 콘텐츠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민족문제연구소,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유관 단체들과 공동 제작했으며,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국현대사 사료정보콘텐츠 메인 화면
▶ 주제별 콘텐츠 화면



사료정보콘텐츠는 사료를 활용한 역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교육용 콘텐츠이다. 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 및 사진 사료를 비롯해 관련 영상과 신문 기사 등 다양한 1차 사료를 활용해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거나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 및 심화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배경지식, 주제와 관련된 설명 및 질문, 글쓰기(생각 나누기), 관련 도서·영상·사이트 안내, 사료정보콘텐츠 학습방법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다.

사료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한국현대사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며,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민주화운동 역사 및 민주주의 교육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문의 : 02-3709-7554, childmagic@kdemo.or.kr)

나눔의 김장 품앗이



지난달 20일(금) 사업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나눔의 김장 품앗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강제연행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징용징병 피해자, 민주화운동 참여자 등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회 임직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공제회, 주거연합, 푸른공감, 전태일 재단, 민청련 등에서 60여 명이 참여해 충북 충주 월악산 자락에 있는 공이리에서 직접 배추를 뽑고 재료를 다듬는 등 정성껏 김장을 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민주화운동 가족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다.(구입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선 010-7757-9733)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심화과정 진행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봉도청소년수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관계의 기술을 주제로 전국의 초중등 선생님들과 함께했다.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기초과정과 핵심역량을 습득하는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사업회 소식

기록관리, 내일을 연다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가 지난달 27일~28일, 이틀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업회와 국가기록원 등 10여 개의 기록관리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사업회는 28일(토),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콘텐츠 구축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사업회가 구축한 사료정보콘텐츠를 비롯해 대통령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의 콘텐츠 구축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경숙 열사 30주기 기념 다큐영상과 음반 제작완성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상징으로,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 김경숙 열사의 30주기를 맞아 사업회가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영상과 음반이 완성되었다. 이 사업은 사료관에서 진행한 민주화운동참여자 기록정리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9월 21일 시사회를 거쳐 지난달 13일에 완성되어 납품되었다.

다큐영상은 6mm 컬러 61분짜리 동영상으로 당시 YH노조를 이끌었던 최순영 위원장, 권순갑 부위원장, 박태연 사무장 등의 증언과 당시의 보도자료, 기록들을 엮어 김경숙과 여성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과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음반은 <꽃다운 1970년대 투쟁의 기억들>이라는 제목으로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투쟁현장에서 불렀던 개사곡들과 영화 꽃다운 O.S.T 등 15곡을 수록하였다.

2009 임직원 혁신 연수회 개최



지난달 6일(금)~7일(토) 사업회 임직원 60여 명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2009 임직원 혁신 연수회를 개최했다. 6일은 경영효율화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와 사업회 중장기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7일은 마석모란공원으로 이동

해 민주열사묘역에 대한 참배와 묘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열사 정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보냈다.

태국 선관위 사업회 방문



영상물을 함께 보고, 한국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한국 정치 윤리'라는 주제로 정일준 고려대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지난달 24일 태국 정치인 60여 명이 사업회를 방문했다. 태국의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 ECT)가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을 찾는 이들은 태국의 각 정당 대표와 상·하원의원, 지역 시 시장과 주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사업회가 개최한 현대직접민주주의포럼에 참석했던 태국 선관위 임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24일 오후 1시 30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한 이들은 한국민주화운동을 다룬

12월 주요 일정

◆ 2009 사업보고대회

- 일시 : 2009년 12월 3일(목) 18:30
- 장소 : 서울 명동 YWCA 5층 연회장 (명동성당 맞은편)
- 문의 : 기념사업팀(02-3709-7612)

◆ 제1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

- 일시 : 2009년 12월 22일(화) 09:00~17:00
- 장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장(안암캠퍼스)
- 문의 : 교육사업팀(02-3709-7628)

◆ 전국기념계승단체워크숍

- 일시 : 2009년 12월 9일(수)~10일(목)
- 장소 : 대구
- 문의 : 기념사업팀(02-3709-7613)